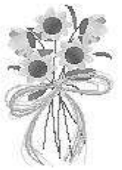
제 588호 부활 제4주일 2009. 5. 3

호 계 주 보

055)231-1088(사제관) 231-4474(수녀원) 231-1122(사무실) 발행인 : 주임신부 신은근(바오로)
630-856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277-2 홈페이지: http://hg.cathms.kr

나눔터



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

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
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.

남이 보기 부러워 할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행복해
보일 듯 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.

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행복에 조건을 알지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은
만족을 모를 터이니 마음은 추운 겨울일지도 모르겠네요.

몸이 추운 것은 옷으로 감쌀 수 있지만 마음이 추운 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

사는 기준이 다 같을 수는 없지요. 행복에 조건이 하나일 수는 없답니다.

생긴 모양새가 다르면 성격도 다른 법 가진 것이 적지만 행복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.

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.

그것이 행복에 조건이기 때문이지요. 남과 비교할 때 행복은 멀어집니다.

그저 감사한 마음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.

축일 축하해요

5 / 3(일) 필립보, 야고보, 알렉산델
5 / 4(월) 치리아고, 플로리아노, 요한
5 / 5(화) 안젤로, 유뜨, 그레센씨아
5 / 6(수) 에보디오, 루치오, 베네딕따
5 / 7(목) 스따니슬라오, 쁠라치도
5 / 8(금) 베네떡도, 보니파시오, 이다
5 / 9(토) 그레고리오, 제론시오

토막교리상식

성체성사의 기원

성체성사에 대한 신앙의 근거는 최후만찬 때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말씀에 있다. 예수께서 베푸신 만찬예식은 유대인들의 빠스카 식사범절에 따른 것이다. 다시말해서 예수께서는 구약의 전통적 예식을 빌어서 제자들에게 최후만찬을 베풀어 주시고, 그것을 새로운 교회, 즉 신약의 중심예식으로 삼으셨던 것이다.

"봉사 섬김 그리고 증거의 삶"